

광주글로벌모터스 오늘 준공...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
9월부터 최고 품질의 경형 SUV 본격 양산
지역 인재 채용·지역기업과 동반성장 실천
상생 실천하고 품질 확보가 성공 최대 관건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 생산설비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체제에 돌입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29일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26일 착공식을 가졌지 1년 4개월 만이다.

GGM은 노사 상생발전 협정에 따라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협력업체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투명경영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광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취지로 노사민정 합의에 의해 탄생했다.

◇허허벌판에 철골 세우고 완공까지 위기극복 과정

2019년 12월26일, GGM은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역사적인 착공식을 열었다.

대한민국에서 23년 만에 건설되는 완성차 공장에 관한 관심은 뜨거웠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통합형 노사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GGM은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착공식에는 박광태 대표이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지역 노사민정위원회 위원, 주주,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공장이 착공하면서 광주가 명실공히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쁨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GGM은 착공식을 계기로 경력직 직원 채용과 정기주주총회, 주주간담회 등을 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과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노사민정의 가장 핵심인 노가 빠지면서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같은해 4월29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사업에 복귀하면서 GGM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이후 GGM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등 공장 건설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4일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소재한 사무실을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본사 공장 현장으로 옮기고 외관 마무리와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등 4월 준공, 9월 양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했다.

올해 2월에는 설비 설치 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시험운전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일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12일 도장공장, 15일 조립공장 순으로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공장 준공을 의미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고 드디어 29일 역사적인 준공식을 열게 됐다.

◇지역 인재 뽑고 지역 업체와 상생·동반성장 실천

GGM은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꾸준히 지역 인재를 채용해 설립 목표였던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실제 그간 11차례에 걸쳐 385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현재 기술직 신입사원 145명 입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모두 520여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특히 이미 입사한 385명 중에는 광주·전남 지역 인재가 350여 명으로 90%를 넘는다. 5월 중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 145명도 광주·전남지역 비율이 99.3%(144명)에 달한다. 이는 GGM이 지역 청년들에게 소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실천한 부분도 돋보였다. 공장 건설에 투입된 44개 장비업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업체 참여율은 98%(42개 업체)에 달했다.

여기에 건축·토목·전기·기계 등 54개 업체 중 지역 업체는 30개사에 달했고, 하도급 대상 공사금액(직접공사비)의 62.8%가 지역 업체에 지급됐다.

또 연간 투입된 건설인력 13만7200여 명 중 지역 인력은 10만9350여 명으로 79%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GGM은 구내식당 식자재의 30% 이상을 지역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내식당 인력 역시 최소 70% 이상을 지역민으로 채용했다.

GGM이 출범하면서 내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충실하게 실천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친환경 설비·차종 변경생산 유연성 큰 장점으로 평가

GGM 공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과 친환경 시스템이다. 이는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모델이라는 기업 구조와 함께 GGM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GGM이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이라는 점에서 최첨단화된 설비와 유연한 생산 시스템은 미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첫 생산차종은 1000cc급 경형 SUV이지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다른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도장공정의 경우 도색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도 기존의 '시너' 대신 수용성 물질인 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해가 없도록 했다.

김민정기자

호남신문 www.j-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문현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흥호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